

“
 나를 돌아보고
 추스르는 과정없이
 어떻게 제대로
 산다 할 수 있나요
 ”

무엇인지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거짓말 하라고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슬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의 새삼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하지 않음을 탓합니다.

불자는 무엇보다 효순(孝順)해야 합니다. 효도하고 응(應)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음식을 잘 장만하고, 의복을 지어준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쨌든 속 편하게 하는 것이 부모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물 흐르듯 거스르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순(順)이고요.

효순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양로원이 늘어나고, 부모를 죽여 토막내는 세상이 어찌 사람사는 곳입니까. 요새의 천지는 온통 검은 먹입니다. 한 주먹 얼른 움켜쥐어 부자돼서 편히 살려고 하지 땅과겠다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쉽게 벌고, 도둑질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흰 눈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안된다” 하고 나서면 차음에는 듣지만, 거름 얘기하면 자기들 하고 같이 겁게 만들어버려요. 흰 눈마저 검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몇 년 전 휴거소동이 일어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목사가 감옥까지 갔는데, 세상이 온통 검은 사람이 휴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새세상이 열린다는데 솔깃했을 수밖에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

는데요.
 ▲늙은이의 푸념으로 들어주세요. 나는 늙어서 이런 육박에 못하니 젊은 스님네들과 불자들의 할 일 많아진 것이겠지요. 세상이 험하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접고 살아요. 원인은 가치관의 혼돈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후보였다고 어느 날 아침 여당으로 가는 세상이니, 자기를 흠어지지 않게 불붙어낼 기풍이 흔들리는 모양이지요.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 정치 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우습게 들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뱉어내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뼈저리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린 단종이 작은 아버지께 의해 목숨을 잃었어요. 역사를 배우는 것은 악연을 다시는 짓지 말자는 뜻인데, 악연을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악연의 결과를 지어줄 것입니다. 삼십년이나 오십년 후 우리 후손들은 오늘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고 또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스님께서는 효순하는 것을 불자의 생활덕목이라고 강조하셨는데, 불교는 효도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셨는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효란 무엇인지요.

▲출가해서 부모를 모시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아 대를 잇지 않으니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효도 보통 불효가 아니겠지요.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출가아말로 부모를 섬볼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성을 깨치게 해주니 이보다 더한 효가 어디 있었어요.

(유방예경) <불설부모은남보경> 등 경전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이 무척 많습니다. <사십이장경>에 보면, 십억의 아래한에게 공양하기로

“나쁜짓 말고 힘써 선행하라” 세살 아이도 아는데 실천 못할 뿐

다는, 백억의 벽지불에게 공양하기로 하는 삼존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세의 양친을 제도함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관무량수경>에도 정토에 태어나려면 세 가지 복을 닦으라고 하는데, 그 첫째가 부모에 효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왜지를 잡는 백정이 업장을 씻으려고 보타산에 들어가 한 노승님께 관세음보살이 계신 곳을 물었습니다. 노승님이 “네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면 빨리 너의 집에 돌아가거라. 관세음보살이 네 집에 계신다. 한 노인이 웃을 뒤집어 입고 신을 겨우로 신고 너를 마중 나올 것이니, 그 분께 열드려 절하고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정이 이 말을 듣고 집에 도착하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 뒤야 할 세가지 복 가운데 첫째가 부모에 효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구암스님.

양내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어서 우리가 험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 하나 보태지요. 조과선사와 유명한 당나라 시인 백낙천의 대화입니다. 백낙천이 물었습니,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짓은 하지 말고, 힘써 선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 외에 세 살 먹은 아이도 하는 말 아닙니까?”

“세 살 먹은 아이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백 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지요.” 지하철역에도 액자에 이런 얘기를 담아 걸어뒀던군요. 가르침을 찾아다니는 수고는 그만 하고 아침에 집을 나서며 품었던 한 생각 오늘 실천하면 됐지, 어디에 새로운 세상천지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apia.com)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현 스님

열반하신 큰스님들의 다비장에 참석해 보면 예전에 함께 생활했던 도반 내지는 선후배 스님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다.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얼굴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그 반가움의 표현이 “요새 어디 계십니까.” “많이 변했네요. 건강하십니까?”라고 한다면 그저 눈인사 정도로 지내던 스님들이고, “아직도 중노릇하고 있나?” “아, 중노릇 지겹지도 않나. 왜 여태 붙어 있어”하면 마음속에 늘 그리워 살던 도반이다.

한눈 팔지 않고 절집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하는 표현이지 너그러운 사람이 왜 아직도 머물러 있고 있나 하는 비아냥은 절대 아니다. 그래도 처음 수계를 마치고 바로 대중 생활을 했던 강당(講堂; 지금의 지방 승가대학)에서의 추억이 제일 그리운게 사실이다.

통도사 감로당 학인시절, 중노릇에 대한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그때, 몇몇 도반스님들과 의기투합해서 “죽을 때까지 중노릇 살자. 번치 말고 이 한몸 생사일대사인연(生死一大事因緣)을 해결하는데 던져버리자”라는 각기와 각오의 결의로 뜻도 모르는 난해한 어록을 무조건 외우고 또 외웠던 어린시절, 무슨 집이 그리 쏠아졌던지 화장실에가

럽게 했었다. 현대 정현스님은 달랐다. 삼일이 아니라 삼 년이 지난 후에도 치문 전체를 줄줄이 외우는 것이었다. 그때의 좌절과 부끄러움이란 지금도 내게 공부는 미련스럽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항상 환희심에 젖어 있던 그의 얼굴에 수심이 깊게 드리워졌었는데, 한동안 책을 덮고 좌선삼매에 빠진 듯 했다. 그러나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올 것이 왔다는 소문이 다름아닌 병역문제, 스스로는 현재의 이 상태에서 계속 부처님 공부만 하고 싶지 않체 다른 상상은 거부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할 것 같다는 단서를 붙여가면서... 어떻게 자신이 총을 들고 그것을 겨룰 수 있겠는가 하고 신용하듯 말하곤 했다. 그래도 주위의 많은 스님들은 사내라면 군대생활은 필수이고 미필자는 사내 취급도 안한다는 사회 통념을 주지시켰지만 그는 오히려 중노릇하는데 득 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양시간에 보면 소식(小食)을 했었는데 그나마 밤의 양을 줄이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신체검사 일주일을 앞두



그림·문병성

학인시절 흔들림없는 수행 자나깨나 손에는 경구쪽지

지 가서 앉아 구벽구벽 졸던 생각을 해본다. 수면중(睡眠中)으로 일컬어졌던 정현 스님, 제법 큰 키에 경상도 사내답지 않은 느린 말투, 호리호리한 체격임에도 동작은 왜 그리 느리던지. 함께 일할 때면 속이 답답해 가슴을 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별칭이 ‘느림보 수면중자’. 눈만 뜨면 오로지 치문, 경구를 외우는 일 외에 어디에도 시선을 돌린 적이 없었다. 3년 내내 한 번 없었던 정가부자 자제 그대로 즉비소리가 날 때까지 시종일관했고 무엇보다 미련하게만 보였던 그 모습에 대중들은 두터운 신뢰를 보았다. 왜냐하면 미련해져 중노릇 할 수 있지, 약이빠진 근거로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지론이었다. 당시 내 생각으로 정현스님은 왜 저렇게 머리가 아둔할까. 그거짓 경구 몇 장 외우는 일에 하루 시간을 다 소비하다니 도대체 지능이 얼마나 되는 걸까 하고 업신여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 스님의 소머리 깡두(鬚頭: 국을 끓이는 소임)였는데 아궁이 앞에 조그고 앉아서도 종일종일, 포항할 때도 웅얼웅얼, 그야말로 자나깨나 경구가 적힌 쪽지를 손에서 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무사태평, 시간만 나면 잡지 또는 시, 소설 따위만 읽었고, 경전은 뒷전이였다. 새벽 예불 후 2시간 정도면 정현스님이 암기한 양의 경구를 충분히 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있었다. 강의시간에 강주스님 앞에서 외울 때는 곧잘 외워졌는데 삼일 정도 지나면 외웠던 문장들이 하나도 기억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많이도 당황스

고 관음전에서 철야기도에 들어갔다. 다들 걱정을 했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었다. 마침내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체념의 눈빛에 알 수 없는 힘이 있어 보였다.

사흘이 지났을까. 소식이 왔는데 신체검사에서 X레이 촬영을 하는데 폐에 구멍이 많이 보여서 면제를 받았다고 했다. 장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촬영결과는 입영불가로 판정되었다 한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병역문제가 해결되자 그의 기도 가피이 야기가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 동취불입 수채불착(臥臥不入 水籠不著)의 일념에 서였을까. 아무튼 그의 간절함이 제도권을 초월하게 하였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는 부처님 밥을 먹고산다.

몇 년 전 성철 큰스님 다비시 때 해인사에서 만났다. 나이살이 찌서인지 감마를 체구가 거구가 되어 있었다.

“정현스님, 아직도 중노릇하고 있네” 하고 반갑게 맞아 그 곳 선원에서 한철 잘 지냈냐 한다. 지금 그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다음에 어느 회상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밥값은 하고 사는겨?”라고 반갑게 반문할 것 같다.

고침: 지난호(285호) ‘지록스님의 스님이야기’를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로 바로잡습니다.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설 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가기 참 쉽다

국내 최초의 전생 매뉴얼북

- 전생 유도 테이프에 의한 최면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 45분짜리 테이프를 한 번 또는 두 번 듣기만 하면.....
- 멘들럼·점막대·손가락·거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술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 꿈과 상상을 통해서 내가 말을 건네면 꿈은 반드시 응답한다.
-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는 전생의 가장 완벽한 증거 주의 깊게 주위를 다시 보면.....

설기문 동대교수·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 유도 테이프에 보호영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생 다녀오는 시간 45분

전생 유도 테이프 포함

●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 대인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02)738-0931

교보, 영풍, 을지, 서울, 영광, 동보서적 베스트셀러

내생각이 내 인생을 방해했다

지금의 처지가 다음과 같다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 왔다.

- 평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면 세상은 넉넉지 않아 살아남으려 고생해야 해.
- 이제껏 제대로 되는일이 별로 없었다면 난안 돼. 나에겐 문제가 많아.
- 만나는 사람마다 좋지 않게 헤어졌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믿을 수 없어.
- 사귀는 남자(여자)마다 어느 선 이상 친해지지 못했다면 사람은 위험해. 이 사람도 결국 나에게 상처만 남길 거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씨앗.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나와 세상을 뿌리부터 바꾸고 싶다면 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씨앗은 때와 조건을 만나면 싹트게 마련이니까.

세계 26개국 베스트셀러. 영어책만 300만 부 판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작티 거웨인 박윤정 옮김 값 6,900원